

강단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며 강의하다가도 교육을 받는 입장이 될 때면 즐기도 하고 강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 사람 섭리인가 보다. 나 자신도 이렇듯 배움의 어려움을 알지만 매 학기 학생들에게는 스티브 잡스의 “배움을 갈망하며 우직하게 공부해라(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을 해주곤 했다.

그러다가 얼마 전 ‘KoreanLII’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잡스의 말을 새삼 되새기게 됐다.

KoreanLII는 우리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법률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koreanlii.or.kr)를 통해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나라마다 KoreanLII와 비슷한 프로젝트 팀이 있고 이들은 ‘법률정보의 자유로운 열람(Free Access to Law)’을 실현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다.



강 / 단 / 에 / 서 / 서

박현일 교수 (법학)

Stay hungry, Stay foolish

현재 영어로 된 우리나라 법률 정보는 극히 적은 데다 그것이 최신의 법률정보인지, 내용은 정확한가 등이 보장돼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 법제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은 로펌에 문의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KoreanLII는 이에 착안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영문 법률자료를 한 곳에 모아 ‘위키피디아’ 처럼 해설을 덧붙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필자가 우리학교의 ‘인터내셔널 스칼라’로 초청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의 그레이엄 그린리프(Graham Greenleaf) 교수가 큰 영향을 미쳤다. 1995년부터 호주에서 AustLII 서비스를 해 온 그린리프 교수가 한국에서도 이런 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이기에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들여가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처럼 가치있는 일이라고 여긴다면 아무리 ‘득이 안 되는 일’도 벌여볼 수 있는 것이다. 아직은 성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어 자원 봉사 학생들과 꾸려나가고 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사비를 써가며 영문 자료를 하나하나 갈무리해 가며 홈페이지에 올릴 글을 찾고 있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니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어리석을 정도로 배움을 갈망해라”는 말을 실감나게 강조할 수 있을 것 같다.

‘영악한’ 요즘 학생들은 학점과 관련이 없거나 스펙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선생님 말씀’은 적당히 가려서 듣는다고 한다. 하지만 조금 어리석을 정도로 배움을 갈망해 보면 어떤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손해 볼 일도 없겠지만, 교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거나 생각지 못했던 관심분야를 발견할 수도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